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과 평가: 주요 대상지의 개발 우선순위 도출을 중심으로*

윤인주**

- I. 서론
- II. 분석틀 및 연구체계
- III.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
- IV.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평가
- V. 결론 및 시사점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의 권역별 주요 해양관광자원 현황을 검토한 후 해양관광자원의 입지·자원·추진여건을 평가했다.

문헌연구를 통해 해양관광자원의 현황을 검토하고, 계층분석방법(AHP)을 통해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평가인자의 중요도를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15개 대상지를 평가한 결과, 고성(금강산), 남포, 원산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나선, 명천(칠보산), 통천(원산-고성 사이), 경성(북한 최대 온천지대) 등이 뒤를 이었다.

평가결과를 통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개발 1순위인 고성, 남포, 원산은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특구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정책의 전반적 방향성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관광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고 있지 않는 경성, 마전 등은 입지여건과 자원여건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 관광 특구 후보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양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입지·자원여건과 추진여건에 차이가 나는 경성, 마전, 강령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반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남북경협을 관점에서 보면 원산-통천-고성으로 기존 남북관광 지역을 확대할 뿐 아니라 남포, 나선 등 새로운 지역에 관광 기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북한 관광, 해양관광, 관광자원, 관광자원 평가, 계층분석방법(AHP)

I. 서론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특구 확대 및 관광산업 강조를 통해 경제 분야 실적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2013년에 지정된 지방급 경제개발구 중 관광개발구는

* 본 논문은 '2015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이메일: injooyoon@gmail.com

온성과 신평, 2014년에 추가된 곳은 청수이지만, 만포, 강령 등도 관광휴양 기능을 포함한다.

북한 관광자원의 현황과 활용, 개발 계획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다.¹ 선행연구는 북한 관광자원을 평가하고 공동 개발 방향을 모색했으며 특히 남북관광 전반의 활성화 방안에 집중되었다.² 2010년 이후에는 중국 관광객 증가를 배경으로 북한·중국 관광에 관한 연구³도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이나 산림 등의 관광자원에 관한 연구⁴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관광개발 움직임을 참고하여 향후 남북협력사업을 예비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동안 북한 관광계획, 남북관광 활성화 방안, 금강산 등 특정지역 관광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해양관광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는 학술적으로 새로운 주제와 방법론을 시도해보고 정책적으로는 구체적인 해양관광자원 및 관광지를 대상으로 손에 잡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북한 해양관광자원의 종류와 분포를 파악하고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자원을 평가하는 것이다. 권역별 주요 해양관광자원의 현황 및 특성을 검토한 후 해양관광자원의 입지여건·자원여건·추진여건을 평가한다. 평가대상지의 순위를 도출하여 현재 북한 관광개발 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¹ 김영규, 『북한의 관광자원 현황 및 발전실태』 (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5); 한국관광공사, 『북한지역 관광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서울: 한국관광공사, 1989); 최승심 외, 『남북관광자원 공동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통연구원, 19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의 관광산업현황 및 관광특구 확대 가능성』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1); 한국관광공사, 『북한 관광자원』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4); 김영봉 외,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 관광시범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2006); 김영운 외, 『북한관광 종합계획 기본구상』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7); 한국관광공사, 『북한관광백서』 (서울: 한국관광공사, 2011).

² 정병웅·심상화, “북한의 관광인식변화와 남북관광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관광연구저널』, 제8권 (1998); 박현선, “남북관광교류협력이 북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교류협력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 (2005); 김영윤,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6); 황보승, “남·북한 관광경제 협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사영·장준복, “남북한 관광개발정책 접근요인에 관한 우선순위 비교분석,” 『관광연구』, 제25권 제2호 (2010); 김사영·장준복,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에 관한 우선순위 비교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2013); 장동석·고계성, “북한관광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 연구,” 『관광연구저널』, 제28권 제7호 (2014).

³ 최철호, “북중 관광 협력의 현황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0월호; 김지연 외,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⁴ 신동주, “남북한 공동 해양관광개발의 방향과 정책지원 방안,” 『산학경영연구』, 제23권 제1호 (2010); 한상열·이성연, “북한의 산림자원과 산림휴양 실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5권 제4호 (2011); 박경석·박소영, “북한의 보호림과 휴양이용 제도,”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6권 2호 (2012).

향후 개발 방향을 제안하며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 및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⁵이다. AHP는 해양관광자원을 평가하는 ‘평가인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논리적 구조로 취합하는 도구로 쓰였다.

이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분석틀과 연구체계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을, 4장에서는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평가를, 5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분석틀 및 연구체계

본 연구는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틀과 연구체계를 거쳤다.

첫째, 해양관광의 정의 및 유형, 해양관광자원의 정의 및 분류를 제시했다. 이는 북한 연구에 있어 해양관광이 다소 생소한 주제라는 점에서 북한의 해양관광자원을 논의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전작업으로 고려되었다.

둘째,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전역의 주요 관광자원을 권역별로 검토한 뒤 해양관광자원을 추출했다. 기존연구 및 보고서 등을 통해 조사된 북한의 관광자원을 파악하고 주요 해양관광자원이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지 15곳을 선정했다.

셋째, 북한의 해양관광자원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인자를 정의하고 측정했다. 평가인자는 연구자가 관광개발 및 북한 관광, 북한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기본틀을 설계했다. 관광개발에 필요한 평가인자를 분류하여 재정의하고 각 인자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와 측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설계된 틀은 국토, 교통, 관광, 경제(개발), 북한 전문가 9명의 자문을 거쳤으며 자문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재조정되었다.

넷째, 다시 표적화된 전문가 12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방법(AHP)을 통해 평가인자별 가중치를 도출했다. 이는 관광대상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의 중요도가 다르므로,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개별 연구

⁵ 의사결정의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잡한 경우, 평가에서 고려되는 항목을 계층화하여 주요요인을 분해하고 이를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함으로써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도출하는 의사결정 기법을 말한다.

자의 판단에 의지하기보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평가대상지의 입지여건, 자원여건, 추진여건을 조사했다. 입지여건과 자원여건에 대한 자료는 북한지역정보넷(www.cybernk.net)을 이용했다. 북한지역정보넷은 북한으로부터 받은 행정구역, 자연지리, 인문지리, 기반시설 등에 관한 정보, 사진, 지도 등을 게시한 웹사이트이다. 추진여건에 관한 자료는 선행연구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자료를 이용했다.

여섯째, 평가대상지 여건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인자에 따라 점수를 매긴 다음, AHP조사 결과인 가중치를 곱해 순위를 도출했다. 평가인자의 등급인 상, 중, 하에 각각 3, 2, 1점을 매긴 후에 AHP조사를 통해 나온 가중치를 각 점수에 곱해 총점을 도출했다. 평가대상지 우선순위는 총점을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부터 정렬했다.

일곱째, 평가순위별 대상지와 현재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관광지를 비교하면서 북한의 관광개발 방향에 대한 타당성,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제안,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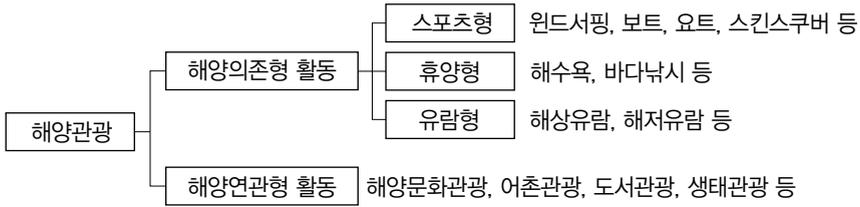
III.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

1. 해양관광 및 해양관광자원의 정의

해양관광(marine tourism)은 일상생활을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관광)이 해역과 연안에 접한 공간(해양)에 의존하거나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해양관광에 포함된다.⁶ 해양관광은 해변, 해상, 해중, 해저를 비롯해 해양 내 육지인 도서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해안관광보다 넓은 개념이기도 하다. 활동 유형에 따라 해양에 의존하는 형태와 해양에 연관되는 형태로 나뉘며 세부 유형과 종류는 <그림 1>과 같다.

⁶ 김성귀, 『해양관광론』 (서울: 현학사, 2007), p. 37.

<그림 1> 해양관광의 유형



자료: 김성귀, 『해양관광론』 (서울: 현학사, 2007), p. 47;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p. 5.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해양관광자원은 해역과 연안에 존재하면서 해양의존형 활동 및 해양연관형 활동에 이용되는 관광자원을 의미한다.⁷ 관광자원은 크게 유형자원과 무형자원 또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대별되며 주로 자연자원, 사회·문화자원, 산업자원 등으로 구분된다.⁸ 그런데 산업이 발전할수록 교육,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매력물인 관광대상을 개발하는 창조형 자원⁹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광대상시설 또는 위락자원까지 고려하여 해양관광자원을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해양관광자원의 분류

유형	설명	구분	예시	비고
자연자원	해양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형태의 관광자원	해안자원	해수욕장, 갯벌	생태관광
		경승지	일출(몰)지, 도서, 기암괴석, 해중경관	
		해양 동식물	물범, 물범, 수달, 고래, 산호초	
		보호구역	철새도래지	
		기타 자연현상	바다 갈라짐(海割, Crossing the Sea) 등	

⁷ 위의 책, p. 40.

⁸ 이상춘, 『관광자원론』 (서울: 백산출판사, 2014), pp. 33~38.

⁹ 김성귀, 『해양관광론』, p. 52.

유형	설명	구분	예시	비고
사회·문화자원	연안 지역 고유의 생활양식, 가치관, 문화, 역사를 반영한 자원	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풍속	어구어법	
		향토음식	지역고유 바다음식, 특산물	
		향토축제	전통축제	
위락자원	연안 지역의 자연·문화자원에 예술, 예능, 스포츠, 교육 등의 목적을 접목시킨 시설	행사	테마형 축제, 스포츠 대회	
		전시·관람	수족관, 전시관, 박물관	
		스포츠·체육	마리나, 요트장, 수상레저사업장, 낚시터, 유어장	
산업자원	해양을 거점으로 하는 산업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	항구	상항, 군항, 어항, 공업항 등	
		어장	양식산란장, 회유로	생태관광
		기타 산업시설	갑문, 방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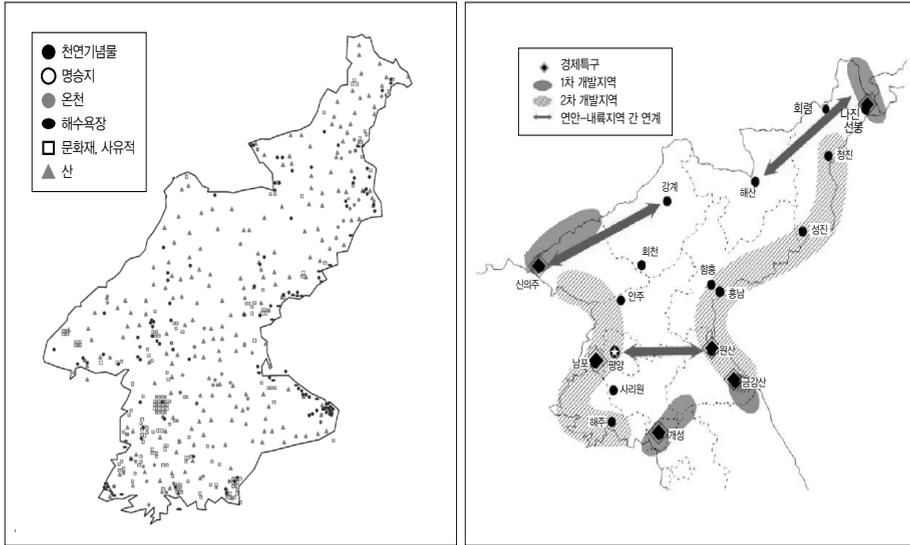
자료: 김성귀 (2007), pp. 41, 42, 52; 이상춘, 『관광자원론』 (서울: 백산출판사, 2014), pp. 33~38 등 참고하여 재구성.

2. 북한 권역별 주요 해양관광자원의 현황

북한이 중국과 북쪽 경계를, 한국과 남쪽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북한의 해양관광자원은 동쪽 및 서쪽 양측 해안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내륙인 자강도, 양강도, 황해북도, 평양시 등을 제외하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남포시 등의 해안(<그림 2> 빛금친 벨트)이다.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현황과 분포는 <표 2>와 같다. 앞서 살펴본 해양관광자원의 분류에 따라 자연자원, 사회·문화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을 파악하고 평가대상지 15곳을 선정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해양관광유형은 해수욕과 해상유람을 중심으로 한 해양의존형이 대부분이다. 생태관광 및 도서관광과 같은 해양연관형 관광에 유리한 자연자원도 보유하고 있으나 인프라 부족 등 추진 여건 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북한의 관광자원 분포 및 해양관광 지역 구분



자료: 김영봉 외,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2004), p. 109; 이상준 외,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경제특구의 수요 및 공급요인 분석을 토대로』 (서울: 국토연구원, 2004), p. xvi.

<표 2>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현황

구분	지역(시·군)	해양관광유형	자연자원		사회·문화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위치(면적)
			해안자원	해양 동식물	특산물/사적지			
1	나선	휴양	비파도, 선봉알섬(등대섬)	재갈매기, 가마우지, 바다오리, 뿔주둥이 등 10여 종, 우암물개	굴/우암 원시유적	영랑호텔(카지노)	나진항, 선봉항, 나진/선봉/우암수산사업소	함북 나선시 조선만, 우암리 서남쪽
2	경성	경승, 휴양	용현리(용양포), 온천*	-	명태, 임연수, 낙지, 참미역	휴양소, 체육시설, 영화관	-	함북 경성군
3	명천	경승, 휴양, 유람	온천	칠보산 자연보호구(각종 희귀식물), 피조개보호구	미역, 다시마, 돌김, 피조개	휴양소, 숙박시설	명천천해양식사업소, 포히수산사업소, 수출품수산사업소	함북 명천군·화대군 북촌리·황진리

구분	지역 (시·군)	해양 관광 유형	자연자원		사회· 문화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위치 (면적)
			해안자원	해양 동식물	특산물/ 사적지			
4	마천	휴양, 유람	마천	-	명태, 도루묵, 징어리, 오징어, 꽂치, 가자미, 까나리	유원지, 휴양소, 야영소, 놀이시설, 낚시터, 화초원, 민속놀이터, 문화시설, 체육시설	함남수산사업소, 홍남비료 연합기업소	함남 함흥시 홍남구역 마천리
5	원산	경승, 휴양, 유람	송도원, 명사십리	-	명태, 징어리, 가자미, 청어	국제소년 야영장, 유원지, 선착장, 야외극장, 케이블카, 수족관, 물놀이장, 경마장, 동물원, 화초원, 식물원	원산조선소, 원산항	강원 원산시
6	통천	경승, 휴양, 생태, 도서	시중호, 총석정, 통천알섬	큰고니, 바다가마우지, 갯가마우지, 바다오리, 꾀새, 검은머리갈매기	명태, 가자미, 오징어 등	요양소, 온천장, 일광욕장, 유선장, 낚시터	통천어항	강원 통천군 패천리, 금란리
7	고성	경승, 휴양, 유람	해금강, 삼일포, 금강장, 형제섬, 온천	큰고니	문어, 섭조개, 털게/ 불교사찰	휴양소, (해상)전망대, 약수터, 휴양림, 산장, 온천장, 향토음식점, 영화관,	고성항, 고성수산사업소	강원 고성군 (외금강), 금강군 (내금강)
8	강령	생태	대수압도, 소수압도	신천웅, 큰고니, 흰두루미살이터	다시마, 김, 굴, 섭조개	-	천해양식사업소	황남 강령군
9	용연	휴양	몽금포, 구미포, 사구	두루미살이터, 장산꽃 식물보호구	까나리, 해삼, 생복/ 인당수	-	몽금포 수산사업소	황남 용연군
10	과일	휴양	금산포, 용수포, 진강포	노랑부리 저어새	삼치, 까나리, 멸치	-	천해양식사업소	황남 과일군
11	남포	경승, 휴양, 유람	와우도	-	꽂치, 홍어, 가자미, 삼치	뱃놀이장, 문화 체육시설	남포항, 서해갑문, 남포수산사업소, 남포조선소, 연합기업소	평남 남포시, 대동강 하구
12	온천	생태, 도서	덕도, 평남온천	빨주둥이, 저어새, 갈매기	소금	-	귀성계엄소, 온천수산사업소 등	평남 온천군

구분	지역(시·군)	해양관광유형	자연자원		사회·문화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위치(면적)
			해안자원	해양 동식물	특산물/사적지			
13	선천	생태, 도서	납도(나비섬)	호군이꼭새, 가마우지, 바다뿔주둥이, 노랑부리백로	멸치, 까나리, 전어, 송어	-	-	평북 선천군
14	정주	생태, 도서	운무도(큰우물섬)	재갈매기, 검은꼬리갈매기, 노랑부리백로, 검은낮저어새	전어, 까나리, 송어	-	정주수산사업소	평북 정주시 애도동
15	철산	생태, 도서	삼차도/참차도	재갈매기, 꼭새, 뿔주둥이, 갈새, 바다가마우지	전어, 멸치, 송어, 새우류, 조개류	-	철산수산사업소	평북 철산군 가도노동자구

* 북한에서 온천이 가장 많은 지역(25개).

** 해양 동식물, 특산물, 산업자원 등은 대표적인 내용만 정리함.

자료: 한국관광공사, 『북한 관광자원』(서울: 한국관광공사, 2004)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IV.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평가

1. 평가인자의 구성

<표 3>과 <표 4>의 평가틀은 김상무(2011)의 연구에서 경상북도 유교문화 관광자원을 평가한 틀을 원용한 것이다. 북한 자료 접근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며 전문가 9명의 자문을 바탕으로 북한 및 남북관계의 특성을 반영했다.

<표 3> 북한의 해양관광개발 평가인자 정의 및 측정

대인자	정의	소인자	측정 단위	측정 기준
입지 여건	관광자원이 위치한 장소의 환경을 둘러싼 여건	접근성	교통수단	주요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보유 여부
		연계성	주변자원	30km내 보완기능을 가진 관광자원 및 시설
		확장성	개발면적	예상되는 관광지 지구의 지정 면적
자원 여건	관광자원 자체의 특성 및 이용 여건	계절성	이용계절	자원의 4계절 이용 가능 여부
		매력성	자원의 질	자연자원, 사회문화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및 관련 시설의 다양성 여부

대인자	정의	소인자	측정 단위	측정 기준	
추진 여건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제약하는 여건	경제성	내부	파급효과	북한의 지역개발, 고용증대, 개혁개방, 외자유치 등 개발효과의 파급규모
			외부	재원조달	한국, 주변국, 국제사회 등의 재원조달 가능성
		정책성	내부	법·제도	북한의 경제특구, 군사시설 등 관련 정책 및 법규
			외부	남북연계	한국의 (대북)정책과의 부합성
		시장성	관광수요	주변국 인접성, 기존에 형성된 관광지 인지도	

<표 4>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평가인자 설명 및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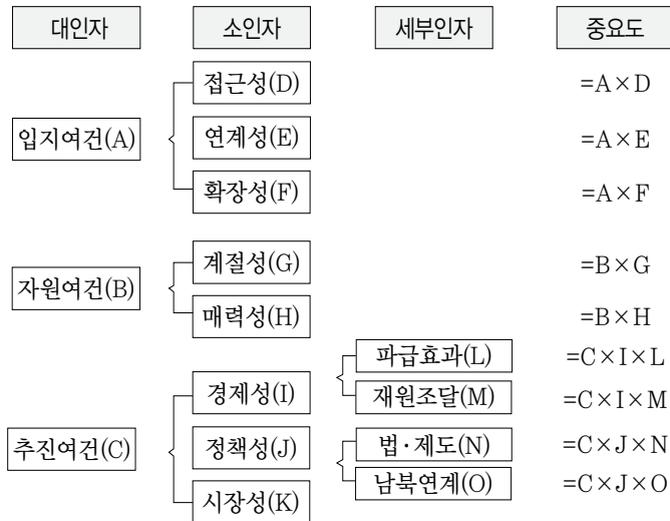
대인자	소인자		설명	구분	등급
입지 여건	접근성	교통수단	주요 공항, 항만, 철도, 도로의 보유 여부	3종류 이상 보유	상
				2종류 보유	중
				1종류 보유	하
	연계성	주변자원	30km(비포장도로 1시간 30분 거리)내 보완기능을 발휘하는 (해양 외) 관광자원의 유무	30km내 3개소 이상	상
				30km내 1~2개소	중
				30km내 없음	하
확장성	개발면적	예상되는 관광지 면적	30만㎡ 이상	상	
			3만㎡ 이상 30만㎡ 미만	중	
			3만㎡ 미만	하	
자원 여건	계절성	이용계절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절의 수	4계절 이용 가능	상
				2~3계절 이용 가능	중
				1계절 이용 가능	하
	매력성	자원의 질	자연자원, 사회문화자원, 위락자원, 산업자원 및 관련 시설의 종류	4종 이상 자원/시설 보유	상
				2~3종의 자원/시설 보유	중
				1종의 자원/시설 보유	하
추진 여건	경제성	파급효과	북한의 지역개발, 고용증대, 개혁개방, 외자유치 등 기대효과의 파급규모	전국 규모	상
				도 단위 규모	중
				시 단위 규모	하
		재원조달	한국, 주변국, 국제사회 등의 재원조달 가능성	2개국 이상 또는 국제사회 지원 가능성	상
				한국 또는 주변 1개국 지원 가능성	중
				외부 지원 가능성 낮음	하
	정책성	법·제도	북한의 중앙급, 지방급 경제특구, 군사지역 지정 여부	중앙급, 지방급 경제특구	상
				특구, 군사지역이 아닌 경우	중
				군사시설 등 지정	하

대인자	소인자		설명	구분	등급
추진 여건	정책성	남북연계	한국의 (대북)정책과의 부합성	우선순위에 있고 서로 부합함	상
				조정을 통해 부합시킬 수 있음	중
				우선순위에 없고 조정 어려움	하
	시장성	관광수요	주변국 인접성, 기존에 형성된 관광지 인지도 등	인접성, 인지도 모두 높음	상
				인접성 또는 인지도 중 하나만 높음	중
				인접성, 인지도 모두 낮음	하

2. 평가인자의 중요도

<표 3>과 <표 4>에 제시된 북한 해양관광자원 개발 평가인자의 중요도에 대해서 국토, 교통, 관광, 경제(개발), 북한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은 계층분석방법(AHP)을 통해 평가인자의 중요도를 쌍대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쌍대비교를 통해 도출된 값을 <그림 3>과 같은 방식으로 가중 적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했다.

<그림 3>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평가인자의 중요도(가중치) 산출 방식



평가인자별로 도출된 가중치를 적용한 중요도 산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문가들은 자원의 매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25.8%), 다음으로 접근성(18.2%), 계절성(11.7%), 확장성(9.5%)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그 뒤를 이어 연계성(7.4%)과 시장성(7.1%)을 비슷하게 고려했고 남북연계(6%)와 자원조달(5.7%), 파급효과(4.4%)와 법·제도(4.2%)의 순으로 고려했다.

<표 5>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평가인자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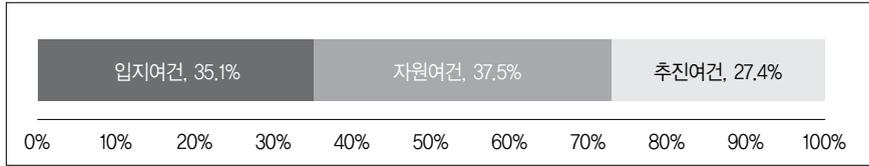
(단위: %)

대인자	값	소인자	값	세부인자	값	최종 가중치
입지여건(A)	35.1	접근성(D)	51.9			18.2
		연계성(E)	21.1			7.4
		확장성(F)	27.0			9.5
		D+E+F 합계	100			
자원여건(B)	37.5	계절성(G)	31.4			11.7
		매력성(H)	68.6			25.8
		G+H 합계	100			
추진여건(C)	27.4	경제성(I)	37.0	파급효과(L)	43.8	4.4
				자원조달(M)	56.2	5.7
				L+M 합계	100	
		정책성(J)	37.1	법·제도(N)	41.2	4.2
				남북연계(O)	58.8	6.0
				N+O 합계	100	
시장성(K)	25.9			7.1		
A+B+C합계	100	I+J+K 합계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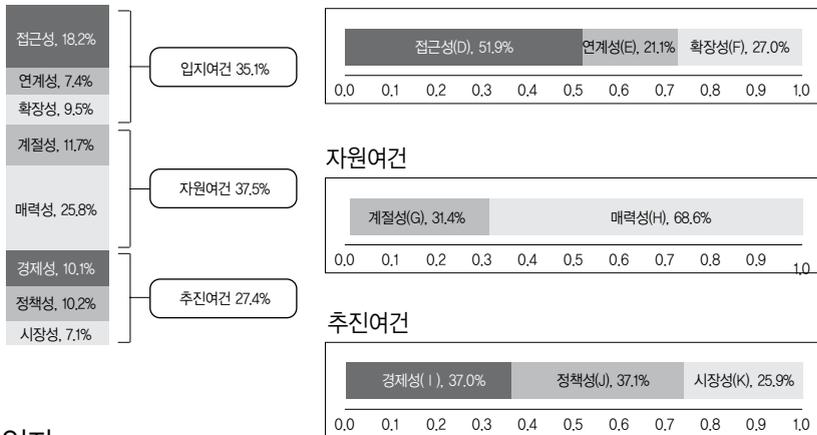
<표 5>에서 A~O로 구분되는 평가인자의 수준별 중요도(가중치)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평가인자의 중요도

대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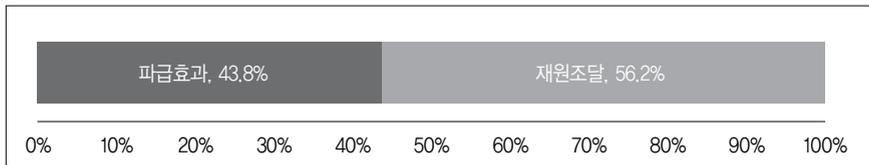


소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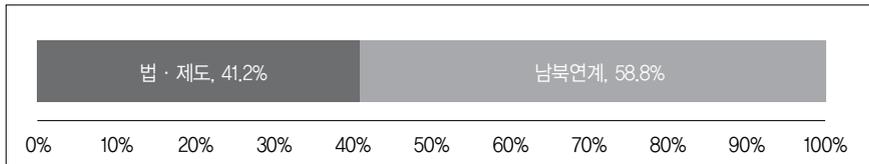


세부인자

경제성



정책성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양관광자원을 평가하는 요소의 중요도를 자원여건(37.5%), 입지여건(35.1%), 추진여건(27.4%) 순으로 고려했다. 자원여건 못지않게 입지여건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됨을 알 수 있다.

입지여건은 접근성(51.9%), 확장성(27%), 연계성(21.1%) 순으로 나타나 주요 교통수단을 이용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확장 가능한 주변 면적, 연계 가능한 다른 자원의 순으로 고려되었다.

자원여건은 매력성(68.6%), 계절성(31.4%)의 순으로 나타나 자원의 다양성이 사계절 이용 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추진여건은 정책성(37.1%)과 경제성(37%)이 비슷하게 중요하고 다음으로 시장성(25.9%)이 고려되었다. 관광개발에 경제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정책성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성은 재원조달(56.2%), 파급효과(43.8%) 순으로, 정책성은 남북연계(58.8%), 법·제도(41.2%) 순으로 고려되었다. 북한의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북한 내부의 법·제도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재원조달 가능성과 외부(남한)와의 연계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3. 평가대상지 순위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평가대상지는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5개 지역이다. 연구자는 이 지역에 대해 <표 3>과 <표 4>의 평가인자 기준을 따라 상-중-하로 등급을 매기고 각각 3-2-1점을 부여했다. 각 점수에 대해서는 전문가 설문 결과로 도출된 <표 5>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곱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했다.¹⁰

¹⁰ 유의할 점은 대상지 간 점수 차이가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표 2>의 평가인자를 구분할 때 편의상 등급을 상-중-하로 나누고 3-2-1점을 산정했지만, 사실상 상-중-하 간의 점수 차이는 3-2-1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점수는 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방편일 뿐, 평가대상지 간의 절대적 가치로 보기는 어렵다.

<표 6>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평가

구분	지역	입지 여건			자원 여건		추진여건					총점	순위
		접근성	연계성	확장성	계절성	매력성	경제성		정책성		시장성		
							파급 효과	재원 조달	법 제도	남북 연계	관광 수요		
	가중치	0.182	0.074	0.095	0.117	0.258	0.044	0.057	0.042	0.060	0.071	1	
1	나선	3	2	2	2	3	3	3	3	3	3	2.71	4
2	경성	3	2	3	3	2	2	1	3	1	2	2.32	7
3	명천	3	2	3	3	3	2	1	3	1	3	2.65	5
4	마전	3	1	3	2	3	1	1	2	1	1	2.23	8
5	원산	3	2	3	3	3	3	3	3	3	3	2.93	1
6	통천	2	1	3	3	3	1	1	3	2	2	2.34	6
7	고성	3	2	3	3	3	3	3	3	3	3	2.93	1
8	강령	3	1	2	3	2	1	1	3	2	2	2.17	9
9	용연	2	1	3	3	2	1	1	2	1	2	1.98	11
10	과일	3	2	3	3	2	1	1	2	1	1	2.16	10
11	남포	3	2	3	3	3	3	3	3	3	3	2.93	1
12	온천	2	1	1	3	2	1	1	2	1	1	1.72	13
13	선천	2	1	1	3	2	1	1	2	1	1	1.72	13
14	정주	3	1	1	3	2	1	1	2	1	1	1.90	12
15	철산	2	1	1	3	2	1	1	2	1	1	1.72	13

15개 지역에 대한 총점(만점 3점)을 기준으로 도출된 순위는 <표 7>과 같다. 금강산이 있는 고성, 남포, 원산(2.93점)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나선(2.71점), 칠보산이 있는 명천(2.65점)도 높은 점수를 차지했고 원산과 고성 사이에 위치한 통천(2.34), 북한 최대 온천지대인 경성(2.32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선천, 온천, 철산(1.72점)은 인근에 ‘바닷새변식지(자연보호구)’로 지정된 섬이 있어 생태·도서 관광 잠재력이 기대되지만 입지·자원·추진여건상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입지여건(만점 1.05점)을 기준으로 보면 경성, 고성, 과일, 남포, 명천, 원산이 공동 1위(0.98점)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총점에서도 대부분 상위를 차지했는데, 전문가들이 입지여건의 중요도를 높이 고려한 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원여건(만점 1.13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성, 남포, 명천, 원산, 통천(1.13점)이 1위를 차지했다. 상기 지역은 자원의 계절성과 매력성을 골고루 갖춘 곳으로서, 총점 기준으로도 대부분 상위권에 속했다. 추진여건(만점 0.82점)을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곳은 고성, 나선, 남포, 원산(0.82점)이다. 역시 총점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는 지역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입지여건, 자원여건, 추진여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고성, 남포, 원산이 총점으로도 공동 1위로 나타났다.

<표 7>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순위(총점)

순위	지역	총점
1	고성	2.93
1	남포	2.93
1	원산	2.93
4	나선	2.71
5	명천	2.65
6	통천	2.34
7	경성	2.32
8	마전	2.23
9	강령	2.17
10	과일	2.16
11	용연	1.98
12	정주	1.90
13	선천	1.72
13	온천	1.72
13	철산	1.72

* 평가인자 총점: 3.00
 ** 동일순위인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표 8>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순위(입지여건)

순위	지역	점수
1	경성	0.98
1	고성	0.98
1	과일	0.98
1	남포	0.98
1	명천	0.98
1	원산	0.98
7	마전	0.91
8	나선	0.88
9	강령	0.81
10	통천	0.72
10	용연	0.72
10	정주	0.72
13	선천	0.53
13	온천	0.53
13	철산	0.53

* 입지여건 총점: 1.05
 ** 동일순위인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표 9>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순위(자원여건)

순위	지역	점수
1	고성	1.13
1	남포	1.13
1	명천	1.13
1	원산	1.13
1	통천	1.13
6	마전	1.01
6	나선	1.01
8	경성	0.87
8	강령	0.87
8	용연	0.87
8	과일	0.87
8	온천	0.87
8	선천	0.87
8	정주	0.87
8	철산	0.87

* 자원여건 총점: 1.13

** 동일순위인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표 10>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순위(추진여건)

순위	지역	점수
1	고성	0.82
1	나선	0.82
1	남포	0.82
1	원산	0.82
5	명천	0.54
6	강령	0.49
6	통천	0.49
8	경성	0.47
9	용연	0.39
10	과일	0.32
10	마전	0.32
10	선천	0.32
10	온천	0.32
10	정주	0.32
10	철산	0.32

* 추진여건 총점: 0.82

** 동일순위인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눈여겨 볼 지역은 각 여건 및 총점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나선, 명천, 경성, 과일 같은 지역이다. 이는 입지여건, 자원여건, 추진여건에서 1위인 지역과의 상대적 점수 차이 때문이다.

나선은 평가대상지 중에서 입지여건(8위)과 자원여건(6위)은 중간 정도였지만 추진여건(1위)이 우수하여 총점(4위) 기준으로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평가대상지가 해양관광자원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 입지여건과 자원여건에서는 점수 차이가 적은 반면 추진여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이다. 나선은 입지여건과 자원여건에서 1위와의 점수 차이가 0.1점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추진여건은 지역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진여건이 우세한 나선이 총점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명천의 경우는 반대 상황이다. 입지여건(1위)과 자원여건(1위)이 우수하지만 추

진여건(5위)이 중간 정도였고 총점(5위) 기준으로 나선의 뒤를 이었다. 명천은 추진여건에서 1위인 지역에 비해 0.28점 차이가 낮기 때문이다.

경성의 경우는 입지여건(1위)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여건(8위)과 추진여건(8위)이 중위권에 머물러 총점(7위)으로도 평가대상지 우선순위에서 중간에 위치했다. 자원여건은 1위에 비해 0.26점, 추진여건은 1위에 비해 0.35점 차이가 낮기 때문이다.

과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입지여건(1위)이 우수하지만 자원여건(8위)과 추진여건(10위)이 낮아 총점(10위)으로도 하순위에 머물렀다. 자원여건은 1위에 비해 0.26점, 추진여건은 1위에 비해 0.5점이나 차이가 낮다.

이는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개발 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해양관광자원 개발 우선순위에 고려되어야 할 개별 요소 즉 입지여건, 자원여건, 추진여건이 모두 중요하지만 각 요소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계산하여 종합적으로 매긴 결과는 각 여건만 보았을 때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즉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개발 시에는 어느 대상지의 입지여건이나 자원여건이 훌륭하다고 해도 추진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개발 후순위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 논문은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현황을 검토하고 해양관광자원의 입지·자원·추진여건을 평가했다. 상기 평가를 토대로 북한 관광개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개발 방향을 제안하며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개발 1순위인 고성(금강산), 남포, 원산은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특구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4년 6월 11일에 최고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설정하고 투자유치에 나서는 등 해양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나선(4위)은 경제무역지대로, 명천(5위)은 칠보산 관광특구 계획에, 통천(6위)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반영되어 있다.

둘째, 관광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관광개발 정책에서 주목받고 있지 않는 지역도 있다.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자원 개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경성, 마전 등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는 입지여건과 자원여건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 관광 특구 개발에서 후보지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해양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입지·자원여건과 추진여건에 차이가 나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휴양지역인 경성(7위)과 마전(8위)은 입지·자원여건에 비해 추진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녹색시범구로 설정된 강령(9위)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지역들은 북한이 관광 특구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이어 차순위 관광개발 지역으로 삼되, 지역전반을 발전시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강령국제녹색시범구에 대해 유기농업·온실재배, 축산, 해삼·전복 양식, 풍력·조력·태양열·바이오연료 개발, 해수욕장·골프·호텔 등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그 실현 여부가 다른 지역에 참고할만한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남북경협 관점에서 보면 기존 남북관광 지역을 확대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 관광 기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인근 지역은 해양관광개발 우선순위에 있어 향후 남북경협 재개 시 활성화가 기대된다. 총점 기준으로 공동 1위에 있는 원산-통천-고성으로 개발 규모를 확장시킴으로써 각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남포와 나선은 무역항으로 알려진 지역이지만 개방이 된다면 와우도, 비파도 등 자연자원은 물론 서해갑문과 나진항 등 산업자원의 관광개발도 추진해 볼 만하다. 또한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우선순위에서는 낮지만 선천, 온천, 정주, 철산도 관광개발 잠재력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한계와 의의,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평가대상지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 접근의 한계를 갖고 있다. 각 지역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별로 없고 현재로서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 조사를 하기도 어렵다. 간접 경험에 의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처럼 여러 지역을 놓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북한을 방문해 본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현재 이용 가능한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직간접 경험을 통한 정보를 넣기만 하면 결과가 개선될 수 있는 평가틀을 구성했다는 데 있다. 현재로서는 연구자가 해양관광자원의 평가인자를 정량화하여 가급적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¹¹ 특히 추진여건과 같은 요소를 판단할 때는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이 개입되어 있다.

¹¹ 연구자는 북한지역정보넷을 비롯한 북한의 지역 정보를 토대로 입지여건 및 자원여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수집했으나 지면 관계상 다 담지 못했다.

자료 접근의 한계 및 주관적 판단을 보완하기 위해 각 지역을 방문하거나 경험 해본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지역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여러 주체, 예컨대 남북 관광 관계자, 북한 외래관광 여행사 관계자, 각 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풀(pool)을 구성하여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의 해양관광자원 현황을 조사하여 주요 대상지의 개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1차적인 목표에 국한되어 있다. 각 지역의 개발 방향이나 개발 사업 제시, 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정치적 의미, 대북정책의 로드맵 등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 접수: 10월 19일 ■ 심사: 10월 20일 ■ 채택: 11월 24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해양부, 2008.
- 김상무. 『관광개발 이론과 실제』. 서울: 백산출판사, 2011.
- 김성귀. 『해양관광론』. 서울: 현학사, 2007.
- 김영규. 『북한의 관광자원 현황 및 발전실태』. 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5.
- 김영봉 외.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 관광시범사업의 협력적 추진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2006.
- 김영윤.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김영윤 외. 『북한관광 종합계획 기본구상』.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7.
- 김지연 외.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의 관광산업현황 및 관광특구 확대 가능성』.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1.
- 이상춘. 『관광자원론』. 서울: 백산출판사, 2014.
- 최승신 외. 『남북관광자원 공동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통연구원, 1992.
- 한국관광공사. 『북한지역 관광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서울: 한국관광공사, 1989.
- _____. 『북한 관광산업개발유형 비교분석: 쿠바·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0.
- _____. 『북한 관광자원』.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4.
- _____. 『북한관광백서』. 서울: 한국관광공사, 2011.

2. 논문

- 김사영·장준복. “남북한 관광개발정책 접근요인에 관한 우선순위 비교분석.” 『관광연구』, 제25권 제2호 (2010).
- _____. “남북한 관광자원개발 계획특성에 관한 우선순위 비교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2013).
- 김성섭 외. “북한주민들의 관광과 여가활동에 대한 이해.” 『관광·레저연구』, 제18권 제4호 (2006).
- 박경석·박소영. “북한의 보호림과 휴양이용 제도.”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6권 2호 (2012).
- 박정철. “관광업의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평가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0권 제2호 (2014).
- 박현신. “남북관광교류협력이 북한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교류협력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 (2005).
- 신동주. “남북한 공동 해양관광개발의 방향과 정책지원 방안.” 『산학경영연구』, 제23권 제1호 (2010).
- 신정화.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변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2010).
- 장동석·고계성. “북한관광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 연구.” 『관광연구저널』, 제28권 제7호 (2014).
- 정병웅·심상화. “북한의 관광인식변화와 남북관광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관광연구저널』, 제8권 (1998).
- 최철호. “북중 관광 협력의 현황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0월호.
- 표성수. “북한관광개방 단계별 이익집단 및 관광시스템 통합요소에 관한 연구.” 『관광품질시스템연구』, 제7권 제1호 (2001).
- 한상열·이성연. “북한의 산림자원과 산림휴양 실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5권 제4호 (2011).
- 황보승. “남·북한 관광경제 협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 기타자료

북한지역정보넷. <<http://cybernk.net>>.

**Current Status and Evaluation of
Marine Tourism Resources in North Korea:**
An Analysis of Development Priority

In-Joo Yoon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marine tourism resources in North Korea and evaluated their conditions in terms of location, resource itself, and driving factors. The status of marine tourism resources were examined by literature review and the evaluation criteria for development potential was prioritized by AHP survey. Among fifteen selected sites, Goseong(Geumgangsán), Nampo, and Wonsan were ranked No.1. Then, Naseon, Myeongcheon(Chilbosán), Tongcheon(located between Wonsan and Goseong), Gyeongseong(the largest area for hot spring) followed them.

The conclusion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Goseong, Nampo, and Wonsan, ranked No. 1, are already designated as special economic zones, which supports the validity of North Korea's development policies. Second, Gyeongseong and Majeon, currently not highlighted in spite of their tourism potentials in terms of location and resource, could be considered as future candidates for special economic zone for tourism. Third, long-term development plans, including strategies to grow the overall region, would be required for Gyeongseong, Majeon, and Gangryeong, where have different levels of conditions in terms of their locations, resources, and driving factors. Fort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uld be not only expanding the existing tourism region to Wonsan-Tongcheon-Goseong, but also developing tourism function in new areas such as Nampo and Naseon.

Key Words: Tourism in North Korea, Marine Tourism, Tourism Resources, Evaluation on the Tourism Resources, Analytic Hierachy Process(AHP)